경제혁신 3개년 계획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
경제혁신
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보 도 자 료
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2015년 6월 16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6.16일(화) 오전 6시 이후 보도가능)
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과장 문양택(044-203-4540), 우경필사무관 (4542)

제5차 에너지테크 혁신포럼 개최

- 기후변화대응, 공유경제 에너지플랫폼 구축 논의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는 '기후변화대응, 공유경제 에너지플랫폼'이라는 주제로, 산·학·연·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에너지테크혁신포럼을 열었다.**

* '15. 6. 16(화) 16:00~19:30 / 르네상스 서울호텔 3층 다이아몬드홀

○ 산업부는 포럼에서는 2050년까지 온도상승을 2°C로 제한하기 위해 국제에너지기구(이하 IEA)가 제시한 에너지 정책과 기술개발 방향을 알아보고, 우리의 정책방향과 기술개발 전략을 재점검하는 삼기로 했다.

○ 에너지를 필요한 만큼 생산하고 소비하는 공유경제* 실현을 위해 에너지플랫폼 구축방향을 기술·제도·경제적 관점에서 논의 했다.

* 공유경제: 빈방 공유 서비스(airbnb), 우버택시(개인 간 기사서비스)와 같이 물품, 지식, 공간 등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자원활용을 극대화하는 경제활동

□ **1부: 국제에너지기구(IEA) 에너지기술과장(장-프랑소아 간냐, Jean-Francois Gagne)의 「에너지기술전망(ETP*) 2015」 보고서 발표.**

* 에너지기술전망(ETP: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)는 국제에너지기구(IEA)가 매년 발행하는 '에너지기술 전망 보고서'로 글로벌 에너지 기술개발 현황 및 중장기 기술개발 방향 제시

○ 이번 보고서는 「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혁신」을 주제로 하며, 2℃ 시나리오* 달성을 위한 주요 연구개발(이하 R&D) 분야로 에너지 효율향상과 신재생 에너지를 제시했다.

* 2℃ 시나리오: 2050년까지 온도상승을 2°C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의 비전을 보여주는 시나리오

○ 에너지 R&D에 대한 각 국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아직 충분치 않은 상태이며,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.

* IEA 회원국들의 에너지 R&D 투자는 전체 R&D의 4%에 해당(2013년 기준)

○ 2016년에는 「도시에너지 시스템」을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.

□ **2부 : 「공유경제 에너지플랫폼 구축방향」이라는 주제로 전하진 의원과 에너지기술평가원 안남성 전(前) 원장의 기조강연과 패널토의를 진행했다.**

○ "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경제"에서 "필요한 만큼 생산하고 소비하는 공유경제"로의 패러다임 전환요구에 따라 주제를 선정했다.

○ 공유경제 에너지플랫폼은 마이크로그리드를 기반으로 여러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발전 자원을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수집·거래하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, 자원의 효율성을 향상과 신산업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.

○ 기술개발 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알기 쉬운 에너지 단위*, 에너지가 화폐처럼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는 거래 환경 등에 대해 경제·제도적 관점에서도 논의했다.

* Watt, TOE 등은 에너지 소비자 입장이 아닌 에너지 공급자 입장에서의 단위로, 일반인들의 인식 수준 낮음

※ 붙임

[별첨1] **제5차 에너지테크(Energy-Tech) 혁신포럼 개요**

[별첨2] **국제에너지기구(IEA) 에너지기술전망 2015 주요내용**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문양택 과장(☎ 044-203-4540), 우경필 사무관(☎ 044-203-454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별첨1 제5차 Energy-Tech 혁신포럼 개요

□ 행사 개요

○ 일 시 : 2015. 6. 16(화) 16:00~19:30

○ 장 소 : 르네상스 서울호텔 3층 다이아몬드홀

○ 주 제 : **기후변화대응, 공유경제 에너지플랫폼**

○ 참석인원 : 국회의원, 정부, 국제에너지기구, 산학연 등 200명

□ 프로그램

○ 1부 : IEA ETP(에너지기술전망) 2015(주제: 기후변화대응) 발표

* 발표자: 장-프랑소아 간냐, Jean-Francois Gagne
국제에너지기구(IEA) 에너지기술정책과장

○ 2부 : **공유경제 에너지플랫폼 구축방향 토의**

* 발표자: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하진 의원
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안남성 前 원장
* 패 널: 권오경(공학한림원 부회장, 좌장), 김현제(에경연 선임연구위원),
김성훈(KT 스마트그리드사업단장), 조용수(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)

□ 세부 일정

세부 시간			주요 행사	비고
1부	16:00~16:10	10分	인사말	KETEP 황진택 원장
	16:10~16:50	40分	IEA ETP(에너지기술전망) 2015	IEA 에너지기술정책과장
	16:50~17:00	10分	Coffee Break	* VIP 환담 (VIP대기실)
2부	17:00~17:10	10分	개회	효성 박승용 CTO
	17:10~18:10	60分	주제 발표	전하진 의원, 안남성 前 KETEP 원장
	18:10~18:40	30分	패널토의 및 질의응답	좌장:권오경(공학한림원 부회장) 김현제(에경연 선임연구위원) 김성훈(KT 스마트그리드사업단장) 조용수(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)
	18:40~19:30	50分	만찬 및 네트워킹	

별첨2 IEA 에너지기술전망 2015

□ 개요

○ 중장기적인 기술혁신 지원 및 투자자에게 신뢰도를 줄 수 있는 **정책수립과 시장구조 체계화**의 최우선 추진이 필요

○ 에너지기술 혁신은 **경제성장, 에너지안보 및 기후변화 완화**의 중요수단

○ 화석연료 의존도의 지속, 에너지시장의 불안정화로 인한 **정부 역할 강화 필요성** 대두

□ ETP 2015 구성 배경

○ 에너지시스템의 저탄소화가 지속되고 있지만 가속화 필요

○ 에너지기술 혁신은 **기후변화협약 이행에 있어 가장 중요함**

○ 기술혁신에 대한 지원은 **저탄소 기술에 광범위한 적용** 필요

○ 현재 RDD&D* 투자 규모는 장기 **기후변화 목표 달성에 미치지 못하고 미래 가치 창출에 어려움**이 예상됨

* IEA 회원국들의 에너지 R&D 투자는 전체 R&D의 4%에 해당(2013년 기준)

* RDD&D: Research, Development, Demonstration & Deployment(연구·개발·실증·확산)

□ 주요 내용

①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기술의 확대

○ 2015년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전환점이 되어야함

○ 예상치 못한 화석연료 가격 하락에 따라 에너지 시스템을 활용한 온실가스 저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

○ 전력공급 측면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전력의 효율성 증대는 2℃ 시나리오 실현의 2대 핵심 요소

* 2℃ 시나리오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별 예상 기여도(2050기준) :
  연료 및 전기 효율성 38%, 신재생 30%, CCS 13%

○ 저탄소 전력생산의 가속화를 위해 화력발전소의 감설 필요

* 2020년 인도의 예상 탄소 배출량이 가장 큼(인도>세계평균>미국>중국)

②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기술 혁신

○ 2012년 전세계 CO_2 배출의 약 2/3를 에너지 부문이 차지하였고 청정에너지 기술개발의 혁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

○ 2℃ 시나리오에서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은 2050년에 연간 전기부문 탄소배출 감소량의 22%를 담당할 것으로 분석

○ CO_2 배출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CCS의 확대를 위해서 정부차원의 민간투자 촉진 및 민영 시장 창출 등의 노력이 필요

③ 온실가스 저감 혁신기술에 대한 지원

○ RDD&D 모든 단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전세계 에너지시스템의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점진적인 혁신을 가능하게 할 것임

○ 기후변화 관련 다자간 국제협력 활동을 통해 2℃ 시나리오 달성에 부응하는 저탄소 기술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음

④ 부족한 RDD&D 재정지원

○ 2℃시나리오 목표 달성을 위해 청정에너지에 정부의 투자 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투자 유도 또한 필요

○ 장기적인 기술목표 설정과 지속적인 추진은 RDD&D에 대한 민간부문 투자에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음